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2025년 2월 10일(월) 제 3031호



김관영 도지사 시군방문(정읍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시군 연두방문을 진행하는 가운데 지난 7일 정읍시청 강당에서 이학수 정읍시장과
도민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관련기사 6면) <사진=전북도>

전북, 소상공인 자금난 지원 ‘숨통 틈워’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17개 사업 1천789억원 지원
특례보증 1조2천억 확대...저신용 자영업자 최대 2천만원 보증
콘텐츠 제작·대형 플랫폼 입점 최대 500만 원 지원
폐업 소상공인도 지원...정리 비용·재창업 ‘브릿지 보증’ 운영

전북자치도는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창업 지원부터 특례보증, 온라인 판로 확대, 폐업 시 정리 지원까지 총 17개 사업에 1천789억원을 지원한다.

도는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과 정착을 돕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희망센터’ 창업보육실을 운영하며 입주 기업(88개 업체)을 대상으로 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시제품 개발 및 마케팅(최대 4백만원), 지식재산권 취득(최대 2백만원), 전문 컨설팅 등을 지원해 창업 초기 기업의 성장을 돕는다.

또한 ‘전북민생솔루션’을 통해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제공하며 경영 개선, 마케팅, 브랜드 개발, 세무·노무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경영환경 개선 비용(최대 2백만원)

도 지원한다.

온라인 판로 확대 지원도 강화한다. SNS 및 소셜커머스를 활용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최대 250만원)과 대형 온라인 플랫폼 입점(최대 5백만원)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돕는다.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2024년 1조원이었던 특례보증 규모를 2025년 1조2천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보듬자금 특례보증’은 전년 대비 1천450억 원 증가한 2천800억 원 규모로 확대되며,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적어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증하는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특례보증’도 운영된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소상공인 대응 저출

산 금융지원 특례보증’은 결혼 10년 이내이거나 임신 및 난임 치료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억 원까지 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특례보증 시 1~3%의 이차보전(이자 지원)을 제공해 저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영세 소상공인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0.5%, 최대 30만 원)와 노란우산공제 가입(월 1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20%), 산재보험(50%)을 지원하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 새롭게 시행한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사업장 정리 비용(최대 2백만원)을 지원해 원활한 폐업을 돕고, ‘브릿지 보증지원’을 통해 개인 보증 전환을 지원하여 재창업 기회를 제공한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소상공인은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금융지원과 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道 대외국제소통국, 소통·공감으로 다가선 도정 실현

도·국화·도의화·중앙부처 정책 전 과정 소통 강화
출향도민과 함께하는 고향 사랑으로 지역발전 유도
지역 미래 여는 외국인정책으로 지역 성장동력 창출

전북자치도 대외국제소통국은 2025년을 ‘정책 소통 및 대외협력 강화’를 통한 도정 발전의 출발점으로 삼고 정치권과 출향도민, 자원봉사자, 외국인 등 도정 동반자들과 대·내외 소통과 협치 전략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국내외 협력 채널을 확대하고 정책소통을 활성화해 도민과의 신뢰 구축에 나서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한편 ‘소통’과 협치로 신뢰받는 대외협력 구현을 목표로 4개 전략, 18개 과제를 역점 추진한다.

먼저, 정치권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 다양한 정치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전북발전을 이끄는 공동 목표아래 중앙·지역 및 여·야를 아우르는 협치를 통해 탄탄한 팀워크를 보여줄 계획이다.

도·도의회 간 소통 다변화 방안

도 추진 중이다. 정책 추진과정에서 사전 협의와 간담회를 활성화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책의 입안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에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국 각지 출향도민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전북도민회(37개소), 호남향우회총연합회(12개소)와의 협력을 강화해 도정 동반자 관계를 돈독히 하며 민간중심 자원봉사를 통해 따뜻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도는 2024년 한 해 동안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이 93억2천만원이고, 기부 건수는 7만3천건으로 전국 3위를 달성했다. 지난 2년간의 기부자가 연속해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답례품 만족도와 운영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운영을 내실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역 특색을 반영한 기금사업

발굴을 위해 시군 협업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도에 적합한 사업을 상반기에 발굴 추진한다.

세액공제 한도 상향, 기부금 자동이체, 답례품 정기배송 등 기부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외국인 유형별, 계층별 다변화된 출입국 이민 트랙을 마련하고 중앙에 지속적인 건의 활동을 통해 지역 수요 및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회통합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유입된 외국인의 흡착한 정착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전북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과 함께 시군별 외국인지원센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 도 자체·우호지역(5개국 11개지역)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협력을 강화해 교류분야 발굴 등 실질적 성과 도출을 도모하고 지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양적, 질적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관 기자

전북을 사랑했던 ‘국민 트로트 가수’ 송대관씨 별세

정읍 출신의 영원한 가객...심장마비로 하늘의 별
오랜 무명시절 보내다 ‘해뜰날’로 국민가수 반열 올라



정읍 출신 가수 송대관씨가 별세했다. 전북에 애착이 깊었던 고인은 ‘22년 군산 출신 배우 김수미 씨 등과 함께 전북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되기도 했다.

전 국민의 애창곡인 ‘해뜰날’로 국민적 사랑을 받아온 정읍 출신 트로트 가수 송대관씨 7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79세.

고인의 유족 등에 따르면 송대관은 전날 컨디션 난조를 호소해 서울대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치료 도중 이날 오전 심장마비로 숨졌다. 평소 지병이 있어 세 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946년 정읍군 태인면에서 태어난 고인은 태인초, 전주서중, 전주영생고를 나왔다. 정읍 출신의 독립운동가 송영근 선생의 손자이기도 하다. 2022년에는 전북출신 김수미를 비롯 김성환·현숙·진성·김용임 등과 함께 전북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되기도 했다.

특히 고인은 고향에 대한 애정

이 남달랐는데 “고향 전북이 없으면 제가 이렇게 탄탄하게 되지 못했을 것이다. 옛날에 가수왕을 우편으로 집계할 때 도내 우체국에 우편 염서가 없을 정도로 제게 사랑을 보내왔다. 그런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싶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답례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실제 2016년 전북이 고향이라는 마음으로 부안군 나주미군농장학재단 후원회원에 가입해 고향 후배들의 소중한 꿈을 응원하고 지역 교육 환경 개선에 동참하기도 했다.

송대관은 1967년 ‘인정받은 아버지’로 데뷔했지만 오랜 시간 무명 생활을 이어갔으나 1975년 발표한 ‘해뜰날’로 상을 휩쓸며 전성기를 구가하며 가요계의 정상에 올랐다. 이후 ‘내박자’, ‘유쾌가’, ‘차표 한 장’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내면서 ‘트로트계 전설’, ‘국민 트로트 가수’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서울=김영목 기자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행복한 추억을 담은

순창 강천산 오토캠핑장

강천산 오토캠핑장 사용료

시설명	사용기준	비수기		성수기 (5월~10월)	비고
		평일	주말		
오토캠핑장	1면/1일	20,000원	25,000원	30,000원	
부대시설	전기시설	2,000원/1일			
	주차장	무료			오토캠핑장 이용객만 사용 가능
	샤워장	무료			

◆ 사이트 크기 : 파쇄석(7m×10m, 8면), 목재데크(4.5m×5.5m, 13면)
◆ 예 약 방 법 : 강천산 홈페이지(https://gangcheonsan.kr/)
◆ 문 의 사 항 : 063-650-5540(강천산군립공원)

※ 캠핑장 이용 시 강천산군립공원 입장료 무료(4인 기준)
※ 카라반, 트레일러, 캠핑카 등 이용 불가. 텐트만 가능합니다.

도 인재개발원, “미래인재 양성·핵심성과 창출” 주력

‘기회의 전북,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미래인재 양성’비전으로 공무원 교육훈련 본격 돌입

전북자치도 인재개발원은 올해 ‘기회
의 전북,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미래
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미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공무원 교육훈련
에 본격 돌입한다.
올해 교육대상은 9만9천819명(497과
정 4,612기수)으로 이는 지난해 교육성
과와 시군 수요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및 행정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목표를
설정했다.
이중 집합교육은 8천819명(97과정
247기)이고, 사이버교육은 9만1천명
(400과정 4,365기)이다.
2025년도 주요 교육과정의 목표는 변

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인재
양성을 위해 직급별 맞춤형 역량교육과
도정운영의 실천역량을 강화하고자 직
무교육과정을 신설해 행정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변화와 혁신을 통한 지방자치 핵심인
재 양성을 위해 국·도정 추진동력을 확
보하고자 ‘지역소멸 대응과 인구정책’,
‘바이오와 방산산업의 이해’ 공직자 마
인드셋 등 12개의 핵심가치 교육을 운
영한다.
이와 함께 일과 삶의 조화를 통한 건
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전북인 자긍
심 고취를 위해 일반교양과정과 도민교
육과정을 확대 운영한다.
또한, 인공지능(AI) 시대에 공공·행정
분야 인공지능(AI)·데이터 시대를 선도
하는 실력있는 전문행정인을 양성하는
위해 인공지능 역량강화 정보화사이버
교육을 신설확대 운영한다.
특히,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
한 올바른 공직가치관 재정립 및 공직
기강 확립 등을 위해 도 4급 이상 고위
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위직 공무원
공직자 마인드 셋’ 교육과정(3기 110명)
을 신설·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시군 우수시책 및 선진사례를
공유하는 ‘시군 특성화 교육’도 올해 확

/정혜민 기자

도, ‘찾아가는 식품산업 자문단’ 남원 추어푸드에 주목

남원 농촌종합지원센터서 세 번째 회의, ‘추어푸드 생태계 구축’ 사업 실행 방안 논의

전북자치도가 지난 7일 남원 농촌종합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동부권 식품
산업 자문단’ 세 번째 회의를 열고 남
원시의 ‘추어푸드 생태계 구축’ 사업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북연구원, 전북바이
오융합산업진흥원, 지역농업네트워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초청농식품벤처
창업센터 등 도내의 식품산업 전문가
들과 전북자치도 및 남원시 관계자들이
이 참석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찾아가는 식품산업 자문단 회의’ 동
부권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
로, 실현 가능성과 완성도가 높은 정책
사업을 발굴하는 자문단 활동의 일환
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남원의 대표적
식품자원인 추어를 중심으로 식품산업



전북자치도가 지난 7일 남원 농촌종합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동부권 식품산업 자문단’ 세 번째 회의를 열고 남원시의 ‘추어푸드 생태계 구축’ 사업의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확대해 전북이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핵
심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도, 올해부터 절토·성토 시 사전신고 의무화

전북자치도는 올해 1월부터 농지개
량 신고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농지개량을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을
계획하는 경우 사전 신고해야 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농지개량행위 신고제는 폐기물 불법
매립 및 무분별한 성토로 인한 환경오
염과 농지 훼손 문제를 예방하고, 농지
의 효율적 관리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농지를 절토나 성토하려면 ▲농지개
량 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
권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농지개량
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
해 방지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농지 소
재 시군구 농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전북자치도,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

전북자치도가 미세먼지를 줄이고 탄
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총 2천
182여원을 투입해 전기차 8천509대, 수
소차 600대를 보급한다고 지난 7일 밝
혔다.
도는 전기승용차에 대해 도비 최대
630만원을 포함해 차량 보조금을 최대
1천2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는 지난
해 대비 보조금 지원액이 10% 감액된
수준이지만 보급 물량은 37% 증가한
5천350대로 확대해 더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
또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생애 최초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의 20%를 추가
지원하고 다자녀가구(2명 이상)가 전
기차를 구매하면 도비 50만원을 포함
해 최대 35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다.
수소승용차는 도비 최대 600만원을
포함해 차량 보조금을 최대 3천450만
원까지 지원하며 지원금 수준은 지난
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그러나 보급 물량은 전년도 대비
83% 증가한 398대로 대폭 확대돼 수소
차 보급 활성화에도 힘을 실을 예정이
다.
도는 2017년부터 대기오염물질을 배
출하지 않는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
며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동참해 왔다.
지난해까지 전기차 24,162대, 수소차
2,776대를 포함해 총 26,938대의 친환경
차를 보급했다.
/정혜민 기자

전북도, 미세먼지·오존 예경보 카톡으로 전환 비용 절감·스미싱 방지 효과까지, 효율적 공공서비스 제공

전북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미
세먼지 및 오존 예경보 서비스를 기
존 문자(SMS)에서 ‘카카오톡 알림
톡’으로 전환, 보다 효과적이고 직관
적인 대기환경 정보를 도민들에게
제공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개편을 통해 도민들
은 미세먼지·오존 예경보 정보를 더
욱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
으며 시각적 효과가 강화된 링크 버튼
을 통해 상세한 대기환경 정보에도
즉시 접근 가능하다.
기존 문자 기반 예경보 서비스는
단문(8.6원/건), 장문(27.5원/건)의
발송 비용 부담이 있었으나, 이번 알
림톡 도입으로 단·장문 관계없이
4.4원/건으로 운영 가능해 45~80%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예
산 절감이 예상된다.
또한, 알림톡은 발신 주체가 명확하
표기돼 공공기관을 사칭한 스미싱 피
해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 도민
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정보 제공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번 서비스 전환으로 기존 문자서비스
가입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알림톡을 받게 되며 카카오톡을 사용
하지 않는 경우 기존처럼 문자로 정보
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전경식 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앞
으로도 대기환경 서비스 영역을 지속
적으로 확장·개선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
혔다.
/김은지 기자

김관영 도지사, 군산시의원과 고성 언쟁에 깊은 유감

김관영 도지사가 군산시민과 대화에
서 김영일 군산시의원과 고성을 주고
받은 데 대해 지난 7일 ‘깊은 유감’이
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군산시민과의 대화가 파행으로 끝
난 지 사흘 만이다.
김 도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도민과 함께
하는 공개적인 자리가 원활하게 마무
리되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도정의 책임자로서
더 성숙한 자세로 도민 여러분의 목
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우리가 모
두 역지사지의 자세로 소통하고 협력
하면서 전북 발전의 해법을 찾길 기
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도지사는 지난 4일 군산시
청에서 열린 ‘군산시민과 대화’에서
김영일 군산시의원과 새만금신항 문
제와 관련해 언쟁을 벌였다.
군산시와 김제시가 오는 2026년 개
항하는 새만금신항 운영 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김 도지사
는 이날 “신항을 무역항으로 지정할
권한은 해수수산부에 있다. 자기를
이 직권으로 지정하면 된다”고 했으
나 김 시의원은 “항만법을 보면 해수
부 장관이 도지사에게 의견을 묻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때 김 시의원이 “최소한 도지사
가 군산시민 앞에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고 김 도지사가 “무
슨 거짓말을 했느냐”며 고성을 내질
렀다.
김 도지사는 이후에도 “도지사, 당
신 똑바로 못해”라는 김 시의원의 말
에 화가 나 “이상한 사람이네, 정말”
이라고 맞받았다.
/군산=지승길 기자

민주당 전북도당 “진보당, 이재명 대표 발언 비판 우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지난 7일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의 이재명
대표 발언을 왜곡한 부박한 언사와 과
격한 단정에 우려를 표한다”고 반박했
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날 “진보당 전
북도당의 이재명 대표 발언 왜곡은 민
주당의 정책 기조와 방향에 대한 왜곡
과 모욕”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진보당 전북도당은 지난 6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
해 “실용주의 운운하며 노동자의 삶을
무너뜨릴 장시간 노동 논의를 당장 멈
출 것”을 촉구한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것
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 나아가 민주
당의 정책 기조와 방향에 대한 명백
한 왜곡이자 모욕이다”며 강하게 반
발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지금은 윤석
열 일당의 내란 행위를 진압하고 있
는 엄중한 시기다”면서 “대한국의 민
주적 헌정질서에 동의하는 모두에게
는 윤석열 내란에 동조하는 극단적
세력의 망동을 제어하며 윤석열 탄핵
과 단죄를 완료하는 것이 현시점 제1
의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
했다.
/서울=김영목 기자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 방지 4가지방법

수도계량기가 얼었다면? 수도계량기가 얼었다면 드라이기로 약하게(50도 미만) 설정후 녹여 주는 방법이 좋아요

수도계량기 보호통 내 보온재를 잘넣고 뚜껑을 밀폐

1.

옥외 화장실, 외부에 노출된 배관에 보온재를 공공 묶기

2.

장시간 외출시, 수도물을 매우 약하게 돌기

3.

동파방지열선 구매해서 활용 하는것도 예방에 도움

4.

道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기업 장려금 지원

초등학생 둔 근로자 10시 출근제 도입…운영 중소기업 장려금 지원, 오늘부터 참여 사업장 모집

도내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상 최대 3개월, 110만원 지원

전북자치도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의 양육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초등학교 10시 출근제(1시간 단축)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오늘부터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에 참여할 사업장을 모집하며 지원 대상은 전북 소재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업장이다. 공공기관, 복지기관 등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업장이나 비영리법인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자는 고용 형태(기간제·대체·수습 근로자 등)에 상관없이 근로계약서 상 1일 8시간 이상 근무를 전제로 한다. 고용보험에 미가입돼 있거나,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



전북자치도는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를 도입하며, 출근제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는 근로자, 고용노동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는 근로자 등은

근로자는 1개월부터 최대 3개월까지 사용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올해는 80명을 선정해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은 초등학부모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 없이 1시간 단축근무(10시 출근 또는 17시 퇴근)를 시행하며, 이를 이행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1개월 40만원, 2개월 70만원, 3개월에는 110만원의 장려금이 지원된다.

신청은 10일부터 전북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www.jbok.kr)을 통해 가능하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경제통상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기업성장팀(063-711-2035)으로 문의해 신청 자격, 필요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김은지 기자



익산원에농협, ‘산지온라인 연도대상’ 최우수상

온라인 매출 129%성장… 못난이 농산물 판매로 농가 수익 증대

전북농협(본부장 이정환)은 지난 6일 정례조회에서 ‘2024 산지온라인 연도대상’ 최우수상을 익산원에농협(조합장 김봉학)에 시상했다.

익산원에농협은 전국 산지온라인 실시한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산지온라인 연도대상’은 온라인 사업실적, 판매촉진(홍보), 인력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농협을 선정하는 상이다.

익산원에농협은 2005년 자산물 ‘농협이마켓’을 통해 본격적인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다. 이후 다양한 판로를 개척하고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한 결과, 2024년 온라인 매출이 전년 대비 129% 증가한 25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매출이 83% 증가하며 81백만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익산원에농협은 외관은 다

소 미흡하지만 맛과 영양이 뛰어난 ‘못난이 농산물’을 온라인에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소비자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가공업체) 대비 약 22%~ 34%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며, 농가의 수익가를 크게 높이는 데 기여했다.

이정환 본부장은 “전북농협은 농업소득 3000만원 달성을 위해 산지온라인 사업을 적극 추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지농협 여건에 적합한 맞춤형 온라인 판로 확대를 농산물 판매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봉학 익산원에농협조합장은 “우리농협은 농가들이 생산한 우수한 농산물을 윈스톱으로 판매 할수 있도록 온라인 유통망을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다양한 판매채널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전주시, ‘서남권 메타버스 아카데미 운영사업’ 교육생 모집

지역 산업체 메타버스 인재 양성 및 공공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현장 중심 실무 경험 제공 목표

전주시와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허진)은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 서남권 메타버스 아카데미 운영사업’에 선정돼 지역 메타버스 산업 인재 양성에 나설 계획이라고 지난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최신 메타버스 기술과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갖춘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시와 진흥원은 메타버스 산업에 관심이 있는 서남권 재직자와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만 39세 이하 청년 25명을 선발해 오는 3월부터 8월까지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은 전주역 앞 첫마중길에 위치한 전북메타버스티원센터(덕진구 백제대로 816) 교육장에서 진행되며, 지역 특

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차별화된 교육이 제공된다.

특히 이번 서남권 메타버스 아카데미는 단순한 교육을 넘어 지역 산업체와 공공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실질적인 현장 중심의 경험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교육생들의 실무 역량 강화는 물론, 지역 내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의 인력 수요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서남권 메타버스 아카데미에서는 △3D 모델링 및 텍스처링 △언리얼 엔진 시네마틱 제작 등 최신 메타버스 기술을 학습하고 프로젝트 실습과 같은

현장 중심의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교육생은 오는 24일까지 한국전파진흥협회 누리집(www.rapa.or.kr) 또는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누리집(www.jica.or.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메타버스 아카데미 교육 기간 중 출석 기준을 충족한 교육생에게는 최대 500만 원(월 100만 원)의 수당도 제공될 예정이다.

허진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은 “서남권 메타버스 아카데미가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고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교육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생의 성과를 관리하며 취업 연계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농식품부, 사업비 21억 투입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사업 대상 공모

농촌빈집, 생활·창업·문화 공간으로 재탄생…민간 창의성·전문성 기반 다양한 빈집재생사업 모델 제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빈집밀집구역 내 빈집을 활용해 생활 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최근 도시민의 4도3촌, 주말 농장 등 농촌체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청년들의 농촌창업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면서 농촌빈집의 활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경북 문경시의 경우 1790년대 지어진 한옥, 양조장, 적산가옥 등을 한옥스테이, 카페, 로컬마켓 등으로 리모델링해 연간 방문객 12만명을 불러들이고,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농촌 빈집을 새로운 자원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활용을 통해 농촌소멸을 극복 중인 사례는 해외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일본의 고스게촌은 민관이 협업해

150년 된 전통가옥과 절벽 위의 집 등을 마을 호텔로 조성한 결과 누적 관광객 18만명을 유치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빈집 활용 사례를 확산하고, 마을 단위의 적극적인 빈집 정비를 위해 올해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농촌의 빈집이 밀집된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을 주거·위계이션, 문화·체험, 창업공간 등 생활인구를 위한 공간과 마을영화관, 공동부엌 등 주민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 139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해 3개소를 선정하고 3년간, 총사업비 2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군은 역



공동으로 사업을 구상하는 등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군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3월21일까지 농식품부(농촌재생지원팀)에 제출하면 농식품부는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3월 중 사업 대

상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사업이 “지역의 가치를 되살리고, 더 많은 이들이 머물고 싶은 농촌을 만드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시·군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새만금청, 시화호 사업 현장 방문…벤치마킹으로 도시경쟁력 강화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 새만금청)은 지난 7일 시화호 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사업 관련 현황을 청취하고 방조제, 주운 수로 등 주요 시설 등을 시찰했다고 밝혔다.

박준형 개발전략국장을 비롯해 청 직원들은 송산그린시티와 시화벌티테크노밸리를 방문했으며, 이곳은 시화호 방조제 축조로 생성된 간척지로 관광과 휴양이 조화를 이룬 친환경 복합산업단지

이며, 새만금 사업과 유사성을 보여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 지구이다.

또한, 시화호 주변 매립지를 활용한 주거·산업·관광시설 개발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들과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특히 우기에 지하 공간 방재 계획 등 도시 안전 분야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박준형 새만금청 개발전략국장은 “신진 개발지와 생활 인구 유치를 통한 지방 도시 활성화와 성공 사례를 적용해, 새



만금 사업 지역에 적합한 아이디어와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북전주농협, ‘제3기 여성대학’ 개강…교육 대상 확대

여성 조합원 및 배우자까지 참여… 건강·자산관리 등 12주 과정 운영

북전주농협(조합장 이우광)은 지난 5일 북전주농협 하나로마트 2층 대회의실에서 ‘제3기 북전주농협 여성대학 개강식’을 수강생과 내·외빈의 축하를 받으며 성황리에 개최했다.

북전주농협 여성대학은 여성 조합원의 복지 증진과 농업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참여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제3기 여성대학은 이전 기수와는 다르게 본인여성조합원 뿐만 아니라 남성조합원의 배우자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해 참여의 기회를 넓혔다.

다.

이번 제3기 여성대학은 총 58명의 교육생이 매주 수요일마다 12회에 걸쳐, 건강과 행복, 웃음치료, 정리수납기술, 자산관리 등 다양한 주제의 교육 프로그램을 받게 된다.

이우광조합장은 “여성대학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고,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길 기대하며, 앞으로 더 많은 조합원 및 조합원의 가족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농촌진흥청, 올해 약용작물 21품목 우수 종자 보급한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약용작물 종자보급협의회 주관으로 올해 약용작물 종자 21개 품목을 보급한다고 밝혔다. 공급 예정 작물은 감초, 갯기름나무(식방풍), 구기자, 단삼, 더덕(양유), 도라지, 마산약), 만삼(당삼), 배조향, 백수오, 병풍, 잔대, 작약, 지치, 지황, 천문동, 하수오, 어성초, 우슬, 황해쑥, 패모 등이다. 공급 규모는 종자와 종근(씨뿌리) 27톤, 모종 202만 주(그루)로, 약 108헥타르(ha)에서 재배할 수 있는 양이다.

종자 공급 시기와 가격이 기관마다 다르므로, 필요한 품목을 확인한 뒤 해당 기관으로 직접 신청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약

용작물과 윤영호 과장은 “고품질 종자 보급은 약용작물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약용작물 신품종과 우량종자가 차질 없이 보급될 수 있도록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지난해 경남 함안에서 단삼 ‘다산’을 재배한 농가는 “전에는 종자를 구하기 쉽지 않았는데 신품종 종자 보급으로 안정적인 재배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한편, 약용작물종자협의회는 농촌진흥청과 도 농업기술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11개 기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해마다 지역과 농업 현장 수요를 반영해 우량종자를 생산, 보급하고 있다.

/최준호 기자

전북교육청, 2025 전북 수학교육 기본계획 수립

수학마스터즈클럽 운영·수학독서교육·수학AI기반 맞춤형 코스웨어 활용 학생 개별화 지원·하루 10분 수학 학습 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올해 10대 핵심과제의 정책기조인 학력신장과 책임교육을 담아 ‘2025년 전북 수학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2025년 전북 수학교육 기본계획은 ‘수학의 가치를 발견하고 수학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는 수학교육’이라는 교육부 제4차 수학교육 종합계획(2025~2029년)의 목표에 맞게 수업혁신과 학생의 수학적 성장 지원, 수학 교사 네트워크 강화 등을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서거석 교육감이 올해 10대 핵심과제의 정책 기조로 삼은 학력신장과 책임교육을 바탕으로 수립돼 눈길을 끈다. 전북교육청은 우선 학력신장 프로그램으로 교사의 문항 제작 연수, 문항제작 지원단 2개팀 운영, 학생 문제해결반 수학마스터즈클럽 30팀 운영, 학력신장 캠프 등을 추진한다.

고등학생 학력신장 프로그램인 수학

마스터즈클럽은 문항제작 연수를 이수한 교사가 4~5명의 소규모 멘토링반 운영을 통해 학생의 수학 성장을 관리하게 된다. 학력신장 캠프에서는 학력신장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 사례가 공유된다. 이 밖에도 수학 독서교육, 학생수학동아리 운영, 고교 선택과목 이수 지원, 수학중점학교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책임교육으로는 수학 기초학력 향상 지원과 소외계층을 위한 수학교육을 위해 힘을 예정이다.

전북교육청은 수학 기초학력 지원을 위해서는 수학AI기반 맞춤형 코스웨어 활용 학생 개별화 지원, 하루 10분 수학 학습 등을 권장할 예정이다.

소외계층을 위한 수학교육으로는 교육부와 함께하는 소외학생 난산증 학생 지원, 소규모 멘토링 사제동행팀 운영, 수리소양 진단 및 수학클리닉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전북도교육청은 ‘2025년 전북 수학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와 함께 일상과 연계하는 수학체험전 운영, 모두가 함께하는 수학체험센터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해 소통과 참여의 수학문화 조성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전북교육청은 학력신장과 책임교육 정책기조가 반영된 수학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수학에 재미를 붙이고 자 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수학교육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깊이 생각하고 수학적 사고를 넓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수학 관련 진로 선택과 수학 학력신장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주공업고, 미래유망분야 양성사업 선정

토목과·스마트건설 분야 선정... 5년간 약 6억 원 예산 투입

전주공업고등학교(교장 오홍학)가 ‘2025년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 양성사업’에 선정됐다.

지난 7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전주공업고 토목과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5년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 양성사업’ 스마트건설 분야에 최종 선정돼 5년간 약 6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 양성사업’은 4차산업혁명 또는 신기술·신산업분야 미래인재 양성이 필요한 직업계고 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한 민간전문훈련기관의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해

신산업분야 맞춤형 실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다.

전주공업고 토목과는 스마트건설이 요구하는 고도화된 교육과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과 국가의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전주공업고는 스마트건설 기술을 중심으로 연간 100시간 이상, 3년간 총 300시간 이상의 심화 실무 훈련 과정을 전문 훈련기관과 함께 운영하며, 학생들은 산업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된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학교, 지역 산업 발전 견인한 기술이전 선두주자

우수 기술이전·기술사업화 등 전북 전체 40% 차지·우수 연구기술 지역 접목시켜 지역 전략산업 성장 동력 제공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연구기술들이 전북특별자치도 산업 발전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연구실의 우수 기술을 산업에 접목하는 기술이전과 기술사업화 부문에서 전북 전체 대학의 40% 이상을 전북대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학정보 공

시를 기준으로 기술이전과 지식재산권 출원 등을 분석한 결과 전북대는 최근 3년 간 299건에 총 49억 원의 기술이전 실적을 보였다. 이는 전북 소재 대학 전체 기술이전 금액의 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전북 지역 내 기업으로 기술을 이전한 비율이 3년 동안 60% 이상으로,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연구개발과

사업과 비중에 매우 높음을 방증했다.

또한 전북대는 국내 특허 출원과 등록에서도 독보적이었다. 최근 3년 동안 국내 특허 출원 661건, 등록 402건으로 이 역시 전북 소재 전체 대학 가운데 40% 이상을 차지했다. 해외 특허의 경우에도 출원 118건, 등록 22건으로 각각 전북 소재 전체 대학의 44%, 81%를 차지했다.

전북대 손정민 산학협력단장은 “전북

대 연구진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기술이 지역 기업에서 상용화되면 지역 전략 산업 발전을 통한 대학-지역 상생 협력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우수 기술들이 지역 산업계로 스며들어 지역 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 사업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전주대 호텔경영학과, 싱가포르 5성급 호텔 인턴십 합격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 호텔경영학과는 싱가포르 5성급 호텔인 콘래드 센테니얼 호텔 4명 및 콘래드 오차드 호텔에 4명을 포함한 재학생 8명이 해외호텔 인턴십에 합격했다고 밝혔다.

재학생들은 싱가포르 힐튼 그룹의 최고 브랜드 5성급 호텔인 콘래드 센테니얼 호텔과 콘래드 오차드 호텔에서 지난달 23일 면접을 진행하였으며, 우수한

면접 평가를 통해 인턴십에 합격했다.

재학생들은 오는 17일부터 근무를 시작하며, 1년 또는 2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주대학교 호텔경영학과는 2006년 2명의 해외 취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해외 취업(인턴십 포함) 누적 인원이 377명에 이른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2025학년도 학생건강증진교육 기본계획 설명회’ 개최

흡연·음주 예방교육 강화·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관리·초등학교 4학년 구강진료 지원·성조숙증 학생 관리 등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학생들의 평생 건강기반 마련과 보건교육 내실화를 추진한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7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초·중·고·특수학교 및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780여 명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학생건강증진교육 기본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학생건강증진교육

비전을 ‘모든 학생이 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로 삼아 ▲평생건강 기반 보건교육 내실화 ▲자기주도적 건강생활 실천 능력 함양 ▲질병 조기발견 및 건강취약학생 건강보호를 3대 중점과제로 추진한다.

기본계획에는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각 학교급에 맞춘 마약류 및 흡연·음주 예방교육을 강화해 유해약물의 조기 차단을 유도하는 등 학생들의 건강 보호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지난해 만족도가 높았던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관리, 초등학교 4학년 구강진료 지원, 난치병 치료비 지원 사업은 지속 추진한다.

특히 신규 조제 제정에 따라 성조숙증

학생 관리 및 체계적인 현행 교육을 위한 교육 자료도 새롭게 마련한다.

보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컨설팅 지원단을 운영해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교 보건교육의 질적 향상은 물론 현장의 다양한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성민 기자

호원대, LiFE 2.0 사업 종합평가 최고등급 획득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가 2주기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2.0) 2차년도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인 ‘A 등급’에 선정됐다.

호원대학교는 ▶사업 운영 공정성 ▶성인학습자 친화형 교육기반 구축을 통한 고등평생 교육체계 수립과 학습데이터 기반 맞춤형 지원 및 환류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와의 협력 거버넌스 운영을 통한 성과 확산, 지역사회 발전과 연계한 대학 평생교육체제 구축 ▶청년기·중년기·장년기·노년기 학습설계 모델 도출·성인학습자 학습지원체계 마



련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최성민 기자

올겨울과 같이 급격한 기온 변화를 보이는 경우 , **블랙 아이스**가 발생 하기 쉽습니다

블랙 아이스 상습 발생 지역



교량



고가차도



터널·지하차도



급커브 구간

★도로가 얼기 쉬운 곳에서 **감속운전** 과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는 필수 입니다

군산시, ‘빈집 정비사업’ 지원 대상자 모집

군산시가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나섰다.

시는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자 오는 21일까지 ‘빈집 정비사업’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빈집 정비사업’은 시에서 빈집을 철거한 뒤 주차장 또는 마을 텃밭 등으로 조성해 지역 주민들의 공용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사업 예산은 군산시가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확보한 사업비 4억4,500만 원으로 올해 빈집 약 50동을 정비할 계획이다.

대상이 되는 빈집은 1년 이상 사용 또는 거주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로 빈집 철거 후 3년간 공공부지 활용에 동의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빈집 소유주는 해당 빈집 소재지 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산시청 주택행정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워크온’ 소상공인 챌린지 참여업체 모집

정읍시가 걷기 앱 ‘워크온’을 통해 시민 건강은 물론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챌린지 참여업체를 모집한다.

시 보건소는 ‘1530 워킹정읍’ 다함께 건강걷기 사업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과 연계한 소상공인 연계 챌린지 참여업체를 모집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워크온’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모바일 걷기 앱으로, 현재 1만 2,500여 명이 가입해 있다. 월별·마일리지 챌린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내 최대 규모로 운영하며 지난해에는 총 4만 1,037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소상공인 연계챌린지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챌린지 기간 동안 목표를 달성한 1,500명의 시민에게는 지역 내 소상공업체 이용 쿠폰(1만원권)이 지급된다.

소상공인 챌린지 참여업체 모집 기간은 2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며 분식점, 카페, 전통찻집, 제과점, 중화요리점이 대상이다. 보다 많은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직접 챌린지에 참여한 업체는 가급적 제외하나, 신청이 부족할 경우 참여를 검토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15개 업체가 선정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한 후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STAY 창업가 주거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군산시가 올해도 (예비)창업가와 창업기업의 직원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군산 STAY 창업가 주거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예비)창업가와 창업기업의 직원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LH 전북본부와 협력하여 진행되는 사업으로 선정된 최대 2년(24개월)동안 임대주택의 보증금(최대350만원)과 월 임대료(월 최대 1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자격은 만 19세 이상 ~ 만 49세 이하로 예비창업자, 업력 7년 미만의 기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또한 LH 공급 주택의 요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세대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주소가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 입주 후 1개월 이내에 군산시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예비창업자는 사업에 선정된 후 6개월 이내에 군산시에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한다.

올해 신청 접수 기간은 오는 21일까지이며 군산시청 6층 기업지원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누리집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군산시 기업지원과 창업지원계(063-454-4392)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천만 관광도시로 도약”

‘천만 관광도시 비전 선포식’ 개최…철도공사 등 4개 기관과 철도관광객 모객 업무협약도

익산시가 1,000만 관광도시를 향해 활시위를 당긴다.

익산시는 지난 7일 웨스턴라이프호텔에서 ‘1,000만 관광도시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선포식에는 정현을 익산 시장을 비롯해 김경진 익산시장, 관광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자리했다.

먼저 익산시립합창단의 중창 공연이 대장정의 시작을 알렸고, 김세만 익산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가 향후 익산시 관광사업의 추진 전략을 공유했다.

시는 이 자리에서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 ▲레일코리아 ▲㈜여행공방 ▲원도피아와 철도관광객 모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들 기관은 익산시와 공동으로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한마음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지난해 시는 ‘익산 방문의 해’부터 야간관광, 축제, 시티투어 등 다양한 관광 상품을 운영한 끝에 목표 ‘연간 관광객 500만 명’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시는 이제 1,000만 관광도시로 향한다는 계획이다.



익산은 ▲고대·근대역사 문화유산 ▲금강·만경강을 품은 천혜의 자연환경 ▲비옥한 토지에서 자란 지역 농산물과 맛집 ▲호남 교통의 중심 익산역 ▲대형 축제와 가족 관광지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지니고 있다. 시는 역사 문화 자원을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그 우수성과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관광 상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익산은 각종 열차 관광상품, 야간형 축제, 어린이 놀이공간 확대 등을 통해 누구나 취향에 따라 가볍게 놀러올 수 있는 관광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왕궁보석테마관광지’에는 놀이체험시설인 롤글라이더가 새로 개장해 나무 사이로 왕궁저수지 위를 나는 듯한 재미를 선사한다. 서동생태공원에는 어린이 특화 테마공간인 ‘어린이 숲속 테마마을’을 조성한다. 시는 이 밖에도 단체 관광객을 위한 활동·체류비 인센티브 지급과 마복사지나 왕궁유적을 활용한 컨벤션 유치 등 유인책도 마련했다.

올해 시는 익산의 맛을 총괄하는 전담 부서 ‘미식산업계’를 신설해 미식 관광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농기계 보험료 지원…경제적 부담 완화

보험비 80% 지원·영세농업인 전액 지원…가입대상 농기계 확대·농업용 리프트 등 2종 추가

정읍시가 농기계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종합보험비를 지원한다.

올해 총 7억 9,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며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기계 사고 발생

시 농업인이 겪을 수 있는 신체적·재산적 손실을 보장해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 8월부터 가입 대상 농기계가 확대돼 현재 총 14종의 농기계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경운기, 트랙터, 콤팩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 포함), 광역

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 운반차 등 12종에서 농업용 리프트와 농업용 고소작업차가 추가됐다.

보험 가입은 보험 대상 농기계를 소유·관리하는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면 가능하며 가까운 농·축협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행복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31억 예산 투입

난임부부 시술비, 임신부 건강 관리, 출산 가정 지원·모아복합센터 건립…결혼·출산·보육 통합 제공

익산시가 저출산 시대 임신·출산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한다.

익산시는 올해 모자보건사업에 31억 1,200만 원을 투입해 준비부터 임신, 출산, 양육까지 단계별로 촘촘하게 지원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우선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연령별 지원 기준을 없애고 모든 난임부부에 동등한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신규 사업인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사업’은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남성 최대 30만 원, 여성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임신부의 건강 관리와 출산 가정 돌봄에도 힘쓴다. 임신부 280 건강관리비 지원은 익산시가 도내 최초로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임신 24주 이상 출산 후 1년 이내에 있는 임신부에게 임신 1회당 산전·산후 건강관리비 4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만 2세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기저귀 월 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을 최대 24개월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익산시는 돌봄 공백 해소와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모아복합센터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김관영 도지사, “정읍에서 전북의 미래를 그린다”

정읍서 ‘도민과의 대화’ 약 300여 명 참석…2036 하계올림픽 유치 기원 퍼포먼스·기념촬영 진행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7일 정읍을 찾아 도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전북의 미래 비전을 함께 그리는 뜻깊은 자리로 채워졌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정읍시청에 도착해 이학수 시장과 유호연 부시장 등 공무원들과 시민들의 환영 속에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소회의실에서 이학수 시장, 시의장단, 도의원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환담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는 정읍의 주요 현안과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어 중회의실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는 정읍시의 주요 정책과 사업 현황이 공유됐다. 김 지사는 도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을 당부하며



정읍시의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표했다.

가장 주목받은 일정은 오전 11시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였다. 약 300여 명의 시민과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와 내빈 소개로 시작된 행사는 이학수 시장의 환영사와 2036 하계올림픽 홍보영상 상영으로 분위기를 달랐다.

김 지사의 특강과 질의응답 시간에는 도민들의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으며 김 지사는 진솔한 답변으로 적극적인 소통의 모습을 보였다.

특히 2036 하계올림픽 유치 기원 퍼포먼스와 기념촬영은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행사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 새만금 마라톤대회 접수 시작

2025 국제마라톤대회 진행…세계육상연맹(WA) 공인 완료

봄철 군산시의 대표적인 스포츠 행사인 ‘2025 군산 새만금 마라톤 대회’가 참가자 신청을 받는다.

오는 4월 6일 군산시 일원에서 열리는 ‘2025 군산 새만금 마라톤 대회’는 군산시와 대한육상연맹이 공동주최하고 전북 특별자치도 육상연맹과 군산시 육상연맹이 주관한다.

대회는 풀코스, Half&Half, 10km, 5km 등 4개 부문으로 풀코스는 5만5천 원, 하프&하프(2인) 9만 원, 10km 3만5천 원, 5km 1만5천 원이며, 참가자들은 군산의 근대 문화유산 일원과 금강호의 수려한 풍경을 질주하게 된다. 군산시는 봄철 군산의 정취를 만끽할 1만여 명의 마라톤 참가자 접수를 내달 17일까지 받는다. 접수는 선착순이다.

특히 올해 대회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참가자들의 원활한 코스 운영을 위해 지난해 11월 대한육상연맹 코스 실측을 통해 코스를 변경하고 세계육상연맹(WA)에 변



경된 코스를 공인받은 국제마라톤 대회로 진행된다.

이런 위상을 입증하듯 이번 2025 마라톤대회는 전북 지자체 체육사업 중 유일하게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국비 2억 1천만 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참가 접수 및 자세한 내용은 대회 누리집(www.gunsanmarathon.com)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 사항 대회 사무국(063-452-9425~6)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의회 최종오 의원·익산시장, 현장 방문

‘20년째 방치된 명일아파트 인근 도시계획 도로’ 공사 착공

지난 5일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오 의원은 정현을 익산시장과 20년째 방치되고 있는 명일아파트 인근 도시계획도로 현장을 찾았다.

모현동 명일아파트 인근 도시계획도로 건설은 20년째 인근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최종오 의원은 지난 제267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명일아파트 인근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종오 의원은 이날 정현을 시장과 현장을 확인하며 “명일아파트를 시작으로 이편한세상 아파트를 연결하는 도로가 개설되면 주민들의 소통과 출퇴근 교통체증으로 인한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인근 주민들 또한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일대가



관리되지 않아 우범지대로 변하고 있어 주민생활에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현을 시장은 “인근 도로가 협소하여 주민 불편이 야기되는 상황을 확인했으며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긍정적인 검토를 고려하겠다”라고 답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내수면 양식업 지원…3억 2천만 투입

양식장 운영 기자재·시설 개보수 등 지원, 토속어류 치어 방류 예정

정읍시가 내수면 양식여가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17개 사업에 3억 2,000만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시설 현대화, 수질 관리, 치어 방류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 사업은 내수면 양식업의 안정적인 민물고기 생산 기반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양식장 운영에 필수적인 수차, 펌프, 수중모터 등의 기자재를 비롯해 질병 예방을 위한 소독제와 수질 정화제, 노후화된 양식장 시설 개보수, 스마트 관리시스템 구축, 청정지하수 개발비 등이 포함된다.

또한, 시는 수산자원 증식과 낚시레저 자원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토속어류 치어(메기, 동자개, 다슬기 등) 약 80만 마리를 방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산물 원산지 지도·점검, 불법어업 단속 등을 강화해 수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깨끗한 유여환경 조성에도 힘쓴다.

어업인 복지 지원도 확대된다. 시는 어민공익수당 지급을 비롯해 어업용 면세유 지원, 수산신문 보급, 수산공익직불금 지급 등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친환경 수소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익산시가 온실가스·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 차량의 대중화를 위해 수소자동차 구매를 지원한다.

시는 17억 원의 예산으로 수소자동차 50대에 대한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보조금은 1대당 3,450만 원이며 5대는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택시 등에 우선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익산시에 30일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

민이나 법인, 단체다. 개인, 법인, 단체당 1대를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친환경 수소차 판매사를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판매사가 ‘저공해차량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시는 자동차 출고·등록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예산 소진 시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익산=최준호 기자

완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추진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사업…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
최대 5천만 원 보증·이자 3년 지원… 37억 원 규모 지원책 마련

완주군이 오는 13일부터 전북신용보증재단, 농협, 전북은행과 함께 자금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사업을 추진한다.

특례보증은 완주군과 전북신용보증재단의 협약으로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들이 경영자금을 필요로 할 때, 일반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제도

다. 완주군은 전북신용보증재단에 3억 원을 출연해 출연금의 12.5배인 37억 5,000만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완주군 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경영하고 있으며 신용등급 7등급 이상인 소상공인이다. 대상자에게는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대출이자 3%를 3년간 이차보전으로 지원한다.

사업은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북신용보증재단 완주지점(용진읍 운곡2로 3)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특례보증 사업이 소상공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돼 지역경제 회복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군, 1기업-1공무원 전담제 올해도 지속 시행

맞춤형 기업 지원…지난해 기업별로 53건 중 42건 해결, 79.2% 해소율 기록

순창군이 관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받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1기업-1공무원 전담제’를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이 제도는 제조업체와 공무원을 1대 1로 연결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하는 맞춤형 기업지원 시스템이다.

군은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관내 27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경제산업국 팀장급 공무원 27명을 전담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추진실적을 보면, 총 53건의 기업으로 사항 중 42건을 해결하며 79.2%의 높은 해소율을 기록했다. 주요 애로사항은 인력난(11건), 자금지원(10건), 제도개선(5건), 판로확대(4건), 환경·안전(4건) 등이었다.

눈에 띄는 해결 사례로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 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농공단지 환경개선 ▲관내 기업 제품 우선구매 촉진 등이 있다. 특히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박람회 개최, 외국인 지역특화비자 안내 등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했다.



순창군이 관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받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1기업-1공무원 전담제’를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을 위해 서 도로 보수, 차선 제도색, 풀베기 사업 등 기반시설 정비도 적극 추진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는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실시했으며, 관내 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우선구매 제도도 시행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올해는 분기별 현장방문을 더욱 강화하고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부서간 협업을 확대해 기업하기 좋은 순창, 일하기 좋은 순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전담제는 이달부터 본격 시행되며, 기존 제조업 중심의 지원을 넘어 기업의 ESG 경영과 디지털 전환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컨설팅도 강화할 방침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순창군,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총 10종 중 1대, 최대 50만원 지원…19일까지 신청 접수

순창군이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부담을 줄이고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5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촌의 고령화와 과소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늘어나는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품목은 농작업 대, 충전분무기, 충전운반차, 고추 수확차, 충전식예초기, 다용도파종기, 충전식자동정기, 소형관리기, 충전식 전기톱, 잡초제거기 등 총 10종이다.

지원 대상은 순창군 관내 거주 여성농업인이며 1농가당 1대씩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최대

50만원으로 80% 보조, 20% 자부담이며 지원 단가를 초과해 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2024년 1월 1일 이후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와 농업 이의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여성농업인은 오는 19일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3년 이내 미지원 농가, 여성단체, 청년단체, 우수농인, 경력단절여성, 연립 등을 고려해 자체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 선덕보육원 아동들, 후원으로 ‘겨울 추억 쌓기’



완주군 선덕복지재단(이사장 김홍석) 산하시설 선덕보육원(원장 성제환)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2박 3일간 무주 덕유산리조트에서 아이들과 함께 ‘스노우 팡팡, 행복 팡팡’ 동계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30여 명이 참석해 아동들의 선호 욕구에 따라 스키팅과 눈썰매팀, 2팀으로 나눠 스키, 눈썰매,

수영장, 서핑체험 등 다양한 체험이 이뤄졌다.

이번 프로그램을 위해 김홍석 선덕복지재단 이사장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현대육, 무주 덕유산리조트 학단사업부 지엘의 적극적인 지지와 후원이 있었다. 성제환 선덕보육원장은 “아동들이 평소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체험을 통해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됐다”며 “선덕보육원에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신 후원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후원자들은 “아이들이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시보건소, 인플루엔자 유행에 예방접종 독려

남원시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유행이 지속되고 있어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을 당부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5년 3주차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57.7명으로 유행기준(8.6명)보다 크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남원시보건소는 독감이 지속적으로 유행하는 상황에서는 서둘러 백신 접종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이번 절기 백신주와 항원성이 유사하므로, 백신 접종으로 충분한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독감 예방접종은 건강한 성인의 경우 70~90% 예방효과가 있으며, 만약

독감에 걸리더라도 합병증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특히 인플루엔자 감염 시 폐렴, 호흡기질환 등 중증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있는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최대한 서둘러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원시보건소 인플루엔자(독감) 무료접종 대상자는 ▲65세이상 어르신 ▲13세이하 어린이 및 임신부 ▲남원시민 중 60~64세·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국가유공자·다문화가족(부부와자녀)·한부모가족이며, 유료대상자는 남원시민 중 14~59세이다. 접종희망자는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보건소로 방문하면 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삼례·고산, 공공 야간·심야 약국 지정 운영

완주군이 주민들의 늦은 밤 시간대 또는 휴일의 의약품 구입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 야간·심야 약국을 지정했다.

공공 야간·심야약국은 심야나 휴일 등 의료 취약 시간대 군민들이 의약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경증 환자의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다.

전문 약사의 복약 지도로 의약품 오남용 및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365일 연중무휴 운영되고 있다.

현재 전북자치도에는 13곳의 공공 야간 심야 약국이 운영되고 있으며, 완주군에서는 삼례읍의 세화약국과 고산면의 남문약국 2곳이 지정됐다. 공공 야간·심야 약국 야간 운영시간은 매일 21시부터 익일 오전 1시 중 3시간을 운영하게 된다.

완주군은 심야 시간대 의약품이 필요한 주민이 공공 야간·심야 약국을 보다 많이 이용하도록 지정 약국에 안내문 등을 게시하는 등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시, 2025년 사업체조사 실시…방문·비대면 병행

남원시가 이달 7일부터 오는 3월 4일까지 ‘2025년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업체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중요한 조사로, 통계청 주관으로 전국 지자체가 동시에 시행한다. 이를 통해 사업체 특성, 지역별 분포, 고용 구조를 파악한다.

조사대상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 남원시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로 총 8,843개 사업체가 현장조사 대상이다.

조사는 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방문조사와 비대면조사(전화, 인터넷 등)를 병행해 실시된다.

조사항목은 사업체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등 9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시 관계자는 “본 조사는 남원시 정책 수립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대상 사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상반기 군민사회교육 운영…수강생 모집

순창군은 군민의 여가활동과 자기계발 증진을 위해 이달부터 7월까지 5개월간 상반기 군민사회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설되는 과목은 생활양재, 광목자수, 기타교실, 도자기 공예, 미술아카데미, 노래교실, 댄스스포츠, 서예교실, 사군자, 웰빙댄스(차차차댄스), 라인댄스(에어로빅) 등 총 11개 과목이다.

수강생 신청 기간은 이달 11일부터 오는 14일까지이며, 순창군청 주민복지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접수할 수 있다. 모집은 선착순으로 이뤄진다.

특히, 연말에는 한 해 동안 교육으로 갖고 닦은 수강생의 작품을 모아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도 개최해 취미생활에 따른 보람까지 얻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할 계획이다.

군민사회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주민복지과(063-650-1261)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 소양면 주민 숙원사업 오상경로당 준공 ‘웃음꽃 활짝’

완주군 소양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오상경로당이 준공됐다.

지난 7일 열린 경로당 준공식에는 유희태 완주군수,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 군의원을 비롯한 소양면 기관단체장,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준공을 축하했다.

오상마을은 지난 2020년 마을이 분리되면서 경로당이 없어 빈집을 임대해 사랑방으로 운영해왔다. 하지만 건물이 좁고 협소해 불편을 겪어왔고 주민들의 뜻을 모아 경로당을 신축하기로 결정, 지난 2022년 신축부지 매입등의 절차를 거쳐 17평 규모의 경로당을 신축했다.

오상경로당은 거실 및 주방, 방 2개, 남녀 화장실을 갖췄다.

준공식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그동안 숙원사업이었던 경로당이 완공돼 무척 기쁘다”며 “경로당 신축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준 완주군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유완군 보건경로당 노인회장은 “앞으로 경로당을 잘 활용해 경로회원들이 모여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오상경로당은 주민분들이 한마음으로 만들어낸 의미있고 소중한 공간이다”며 “앞으로도 완주군은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시 드림스타트, 9개 아동발달 심리상담센터와 협약

남원시 드림스타트는 지난 7일 평생학습관(본관)에서 관내 아동발달 심리상담치료센터 9개기관과의 업무협약 및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여성가족과장의 주재하에 관내 심리상담센터 관계자가 참석해 올 한해 사업 진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첫 간담회로 민간 협업을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

였다. 드림스타트는 업무협약을 통해 심리상담센터에서 상담비의 일부를 후원함으로써 사업 참여에 따른 자금심과 책임감을 부여하는 기회가 됐다고 전했다.

현재 남원시 드림스타트는 12세 이하(초등학교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신부에게 4개 분야(부모/가족, 신체/건강, 정서/행동, 인지/언어)로 나누어 대상자에게 필요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자



과 협약 체결을 통해 드림스타트 대상자의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군산시 여성자원봉사회, 취약계층 지원 위해 1백만원 나눔 실천

군산시 여성자원봉사회(회장 이인규)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써달라며, 이웃사랑 성금 100만 원을 신봉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전달된 성금은 봉사회 회원들의 기부금과 폐지 등을 수거해 마련한 소중한 금액이다. 또한 군산시 여성자원봉사회는 신봉동에 쌀 기부 등 꾸준한 후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왔다. 지난 6일 기탁식에 참석한 이인규 여성자원봉사회 회장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이 신봉동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회원들과 함께 지속해서 지역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하겠다”라고 말했다. 신봉동 행정복지센터는 지정 기탁금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특화사업 추진으로 신봉동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활동을 지속해서 실천할 예정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장수군 행복콜센터 직원 일동, 가정위탁아동 위해 1백만원 기탁

장수군 행복콜센터(회장 전일수) 직원들은 7일 장수군청에 방문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십시일반 모은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행복콜센터는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교통 복지서비스로 마을 주민들이 읍·면 소재지를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가정위탁아동 10명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전일수 회장은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하는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자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성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꾸준히 소통하며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훈식 군수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정성을 모아주시는 행복콜센터 직원들께 감사드리다”며 “소중한 성금이 꼭 필요한 가정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전주시자원봉사센터, 6명에 시장표창 수여

오연화 씨·이영자 씨·최윤순 씨·박찬임 씨·김현승 군·동굴레봉사단 영예

평소 자원봉사를 통해 나눔의 기쁨을 실천해온 전주시민 5명과 1개 단체가 ‘전사도시’ 전주를 빛낸 으뜸자원봉사자로 선정됐다. 시민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최이천)는 지난 7일 시청 3층 회의실에서 ‘2024년 4분기 으뜸자원봉사자 시상식’을 열고, 일반인 4명과 청소년 1명 총 5명의 자원봉사자와 1개 단체에 전주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먼저 일반인 부문에서는 ▲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 문서 작성 및 관리 사무 지원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쳐온 오연화 씨(27세, 여) ▲양지노인복지관에서 식당 관리와 배식 봉사를 해온 이영자 씨(78세, 여) ▲전북특별자치도노인



평소 자원봉사를 통해 나눔의 기쁨을 실천해온 전주시민 5명과 1개 단체가 ‘전사도시’ 전주를 빛낸 으뜸자원봉사자로 선정됐다.

복지관에서 조리 및 배식 봉사, 염색 봉사활동 등을 실시해온 최윤순 씨(68세, 여) 등 3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또한 정성평가 일반인 부문에서는 지난해 자원봉사를 처음 시작한 환경미화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쳐온 박

찬임 씨(71세, 여)와 전주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요리 및 식사배식 봉사활동을 펼쳐온 2024년 소규모 최고실적 봉사단체인 ‘동굴레봉사단’이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이와 함께 청소년 부문에서는 학업을 병행하며 노인들을 위한 봉사와 어린이들을 위한 봉사, 장애인들을 위한 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실히 봉사활동을 실시해온 김현승 군(16세, 남)이 전주시장 표창을 받았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평소 이웃들을 위한 봉사를 실천해 전주시를 인정 넘치는 전사의 도시로 만들어준 모든 봉사자분께 고마움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금강환경건설(유)임실아스콘, 임실군에 5백만원 기탁

지역사회 발전·주민 복리 증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전액

금강환경건설(유)임실아스콘 양해춘 회장이 지난 4일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임실군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금강환경건설(유)임실아스콘은 2008년 창립 이후 임실군 신평면 창인로에서 도로공사에 사용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아스콘)를 생

산하고 있으며, 지역 개발 사업에 필요한 관급·사급 자재를 납품하는 기업이다. 심 민 군수는 “임실군을 향한 관심과 따뜻한 응원에 깊이 감사드리다”며 “기부금이 군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주)대성에너지센터, 나무심기 성금3백만원기부

익산시는 (주)대성에너지센터(대표 이행만)가 녹색정원도시 만들기에 동참하고자 성금 300만 원을 기부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세푸른익산)가구기 운동본부에 기탁된 후 나무 식재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행만 대표는 “익산시의 녹색정원도시 조성과 푸른 익산가꾸기 사업에 보탬이 되고자 성금 지원을 결정했다”며 “기업의 이익을 사

회에 환원해 익산시민과 함께 상생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현울 익산시장은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녹색정원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녹색정원도시 조성을 위한 나무심기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남원시 보절장학회, 지역인재 4명에 장학금 쾌척

보절장학회(회장 소인섭)는 지난 6일 2025년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평소 학업에 정진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지역 학생 4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보절장학회는 2017년 지역인재 양성과 학업 지원을 위해 뜻을 함께해온 보절면 주민들이 자재적으로 구성된 단체로, 회원들이 월 일정액을 기부해 마련된 기금으로 매년 지역 인재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소인섭 보절장학회장은 “회원들의 정성을 모아 마련한 장학금이 우리 회원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기 보절면장은 “지역 후배들을 위해 관심과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보절장학회에 감사드리며, 우리 지역 학생들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고산면 새마을부녀회, 정월대보름 맞이 찰밥 나눔

완주군 고산면 새마을부녀회(회장 이경순)가 다가오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관내 취약계층 350여 가구에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찰밥 나눔 봉사에 나섰다. 지난 7일 새마을부녀회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고산농협의 회원과 부녀회원들의 후원금 및 후원품으로 찰밥과 각종 나물, 굴절지 등을 알차게 준비해 이웃과 나눴다. 이 자리에는 유희태 완주군수도 참여해 회원들을 격려했다. 부녀회원들은 찰밥 꾸러미를 취약계층 이웃 세대와 각 마을 경로당을 찾아 나누며 안부를 확인하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고산면 연합회장님과 부녀회장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정월대보름을 맞아 정성을 담아 준비한 찰밥과 반찬이 우리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사)건설기계 개별연명 사업자 협의회 진안지회, 1백만원 기부

(사)건설기계 개별연명 사업자협의회 진안지회는 지난 7일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전춘성)에 장학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기탁식에 참여한 양주현 회장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학재단에 후원함으로써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양성하는 데에 기여하고 싶었다”라고 후원의 소감을 전했다. 이에 진안사랑장학재단 전춘성 이사장은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지가 학생들이 꿈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장학재단에서는 그 뜻을 받들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전길빈 기자

김제시 금만라이온스클럽, 소외계층 위한 쌀 50포 기탁

김제시 만경읍 행정복지센터는 금만라이온스클럽(회장 김용태)이 지난 7일 만경읍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쌀(10kg) 50포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금만라이온스클럽은 연탄 나눔 봉사, 이웃돕기 성금 기탁 등 평소에도 지역사회 발전 및 소외된 이웃을 위한 기부활동을 활발히 펼쳐오고 있어 지역사회의 좋은 귀감이 되고 있다. 김용태 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부녀 만경읍장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쌀 나눔을 해주시는 금만라이온스클럽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다”고 말했다. 한편, 기탁된 쌀 50포는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및 독거노인 가정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제=윤봉기 기자

대설로 인한 ‘빙판길 안전수칙’



안전거리 확보



빙판길은 우회



입수 보행 금지



빙판길 스마트폰

사용금지



내리막길은

엔진 브레이크



굽이낮은 신발

운동화착용

〈一事一言〉



언론이 퍼뜨리는 정치적 독극물(1)

유시민
작가

길었던 설 연휴 기간 소위 '게저 언론'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윤석열 기소와 탄핵 심리가 아니었다. 기자들은 윤석열보다 김경수한테 더 큰 관심을 보였다. 그의 SNS 글과 김부겸·임종석·김동연·김두관 등의 발언을 연계 보도했다. 그들의 이름을 키워드로 넣고 기사를 검색해 보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기사가 뜬다. 언제 어떤 공직을 지냈는지 잘 알려져 있으니 도지사니 총리니 비서실장이니 하는 호칭은 모두 생략한다. 그리고 편의상 기자들이 쓰는 '비명계'를 그들을 통칭하는 말로 사용한다.

'비명계' 정치인들은 민주당의 '일각체제'를 비판하면서 당의 통합과 포용적 리더십을 강조한다. 최근 여론조사 데이터를 근거로 들어 민심이 민주당을 떠나고 있다고 진단한다. 소위 '사법 리스크'를 은근히 거론하면서 자신이 이재명보다 나은 대안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견해가 논리적으로 타당하며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살피지 않겠다. 그들이 민심을 모을 수 있을지, 정권 교체를 원하는 시민들의 마음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지 여부만 가능해 보겠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럴 것 같지 않다. 현재의 윤석열 파면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서 일제히 활동을 개시한 민주당의 자칭 타칭 대선 주자들은 22대 총선의 '반명' 정치인들과 비슷한 경로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논리적으로 틀린 주

장을 해서가 아니다. 대선에 임하는 방식이 민심의 흐름과 맞지 않아서다. 언론의 보도량은 대중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는다. 언론이 좋게 보도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좋아하는 것도 아니다.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을 탈당해 국힘당으로 건너가거나 신당을 만들었던 정치인들은 큰 착각을 했다. 언론이 많이, 크게, 좋게 보도해주면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믿었다. 최근 활동을 개시한 민주당의 '비명' 대선주자들도 같은 착각을 하고 있다. 현실은 정반대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평소 이재명과 민주당을 비방해온 언론이 피우를 정치인을 배격한다. 언론 보도를 정치적 독극물로 여긴다. 그런 혐의를 두지 않고 보는 신문과 방송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정치인이 언론의 정치 보도에 현혹되면 대중의 요구를 듣지 못하게 된다. 민심의 흐름을 읽지 못할 위험이 커진다. 그런 보도의 전형을 하나 가져왔다. 독성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윤석열 파면과 정권교체를 간절히 바라는 시민들은 이것이 정치적 독극물임을 본능적으로 알아챈다. 그러나 민주당의 '비명계' 정치인들은 이런 것을 영양제로 여기는 듯하다. <조선일보> 주필 양상훈은 1월 16일 칼럼에 다음과 같이 썼다. "생각이 많이 치우치지 않은 분들에게서 요즘 자주 듣는 말이 '윤석열·이재명 둘 다 없어졌으면'이었다."

“생각이 많이 치우치지 않은 분들에게서 요즘 자주 듣는 말이 ‘윤석열·이재명 둘 다 없어졌으면’이었다.”

면 좋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민주당에 오래 몸담았던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국민이 결코 적지 않다는 사실은 요즘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금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론은 60%를 넘는다. 현재 민주당에서 이 대표 외에 뚜렷한 대선 주자가 없는 만큼 이 정권 교체론의 대부분을 이 대표가 흡수해야 맞는다. 그런데 이 대표 지지율은 다른 주자들에 비해선 압도적이지만 35% 안팎에 갇혀 있다. 서울에선 20%대다. 전국적으로 40% 선이 뚫기 힘든 천장처럼 보인다.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고 답하는 국민 중에서도 이 대표를 적극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20% 이상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유권자 숫자를 대입하면 900만 명에 육박한다. 실제 대선에선 이들 중 상당수가 어쩔 수 없이 이 대표를 찍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더라도 최소한 현재로서는 이 많은 국민들이 '윤, 이 둘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실제 여론조사 결과가 정말 그런지, 데이터 해석이 논리적으로 타당한지는 따지지 않겠다. 여론조사에 따라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다. 이 칼럼을 가져온 것은 글의 내용이 아니라 글에 나타난 의도 때문이다. 양상훈은 너무 뻔히 보여서 우스울 정도로 분명하게 속내를 노출했다. 독자를 바보로 아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그 자신이 바보다. 왜? 양상훈은 이 칼럼 원고를 1월 15일에 다듬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윤석열은 이미 없어진 거나 다름없었다. 바로 그날 새벽 경찰과 합동작전을 시작한 공수처는 한낮에 윤석열을 체포해 조사실에 데려갔다.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예상하는 건 어렵지 않았다.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발부했다. 윤석열은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 송부했고 검찰은 윤석열을 내란수괴 혐의로 기소했다. 서부지법 폭동처럼 예측하지 못한 사건이 있었지만 윤석열의 운명은 달라지지 않았다. 다시 말하지만, 권력자 윤석열은 1월 15일에 없어졌다. 현재의 대통령직 파면과 법원의 내란혐의 유죄선고는 불을 보듯 훤히 다. 양상훈은 독자를 속이려고 했다. 칼럼의 제목이 정직하지 않았다. '이재명도 없어졌으면'이라고 해야 정직한 제목이다. 다시 말하지만 양상훈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든 윤석열은 없어졌다.<계속>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게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과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소상공인 지원은 지역경제 살리는 길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인 소상공인들이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요구된다. 최근 전북자치도가 창업 지원부터 금융 지원, 온라인 판로 확대, 폐업 지원까지 총 17개 사업에 1천789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매우 바람직한 조치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선, 소상공인의 창업과 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전북소상공인 희망센터와 같은 창업 보육 시설은 더욱 확대 운영될 필요가 있고 입주 기업 지원뿐만 아니라 창업 전 단계에서의 교육과 멘토링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시제품 개발, 마케팅, 지식재산권 취득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창업 기업이 빠르게 안정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기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전북민생솔루션과 같은 현장 컨설팅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경영 개선, 마케팅, 브랜드 개발, 세무·노무 상담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도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야 하고 특히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교육과 인프라 지원도 필요하다. 온라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SNS 마케팅 및 소셜커머스 활용법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대형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도 마련해야 한다.

금융지원 정책도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전북도가 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특례

보증 규모를 증액하고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및 저출산 대응 특례보증을 신설한 것은 긍정적인 조치다. 하지만 단순한 보증 지원뿐 아니라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대치를 상환할 수 있도록 장기 저리 대출 상품 개발과 이자 지원 확대도 병행해야 한다.

또한 카드수수료 지원,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도 강화되어야 한다. 사업장 정리 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폐업 후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교육과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브릿지 보증지원'과 같은 정책을 통해 개인 보증 전환을 지원하고 실패를 딛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밖에 지자체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소상공인 단체, 금융기관, 유통업체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또한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해 소상공인의 경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상공인은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주체다. 이들의 성장과 안정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은 결국 지역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갖추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화재열전



선운사 사적기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 분류 - 기록유산, 사찰문서
- 지정일 - 1997년 7월 18일
- 시대 - 조선시대
- 소재지-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50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 (윤관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김관춘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사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중앙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전안지국 010-2433-1721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오늘의시

비망록 / 문정희

남을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가난한 식사 앞에서

기도를 하고
밤이면 고요히
일기를 쓰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구겨진 속옷을 내보이듯
매양 허물만 내보이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사랑하는 사람아
너는 내 가슴에 아직도
눈에 익은 별처럼 박혀 있고
나는 박힌 별이 돌처럼 아파서
이렇게 한 생애를 허둥거린다.

시인 약력 : 1947년 전남 보성 출생.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서울여대 대학원에서 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69년 '월간문학' 신인상에 당선되어 문단에 등단

했다. 현대문학상을 수상했다. 시집으로 '문정희 시집', '새매', '절레', '하늘보다 먼 곳에 매인 그네', 수필집 '지상에 머무는 동안' 등을 출간했다. 동국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겸임 교수로 재직

했다. '공초문학상' '이용악문학상' '목월문학상' '월간문학 신인상' 등을 수상했다. 국립한국문학관 관장과 제40대 한국시인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믿을 수 있는 뉴-스, 전북의 중심에서 전북타임스!

기사제보 282-9600 광고문의282-9601 신문구독 283-8800 전북타임스신문

익산시, 농업 혁신 선도할 청년농업인 육성 '박차'

- ▶ 44억 원 투입해 17개 사업 추진... 분야별 체계적 지원
- ▶ 영농창업, 생활안정, 역량강화·상생협력 위한 정책 추진
- ▶ 살고 싶고, 일하고 싶고, 성장할 수 있는 농업환경 조성

익산시가 지역의 농업 혁신을 이끌 청년농업인 육성에 적극 나선다.

익산시는 청년농업인의 꿈과 도전을 지지하기 위해 올해 17개 사업에 44억 원을 투입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시는 ▲영농창업 ▲생활안정 ▲역량강화·상생협력 등 필요한 분야별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시는 올해 효과가 뚜렷한 기존 사업은 확대하고, 수요가 많은 신규 사업을 다수 마련했다. 특히 청년 후계농 선정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에 집중할 예정이다.

을 해소하고자 귀농 청년 맞춤형 아이디어 지원 사업도 새롭게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시설하우스·축사 신축이나 개보수, 장비 설치 등을 지원해 역량을 갖춘 청년농업인이 익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뿐만 아니라 농업 전문가와 선배 농업인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을 운영해 애로사항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영농노하우도 전수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생활안정 분야 - 정책자금 이차보전 확대 등 다양한 정책 지원

시는 영농 창업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후계농의 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도 추진한다.

우선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후계농의 이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산 1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이차보전사업 지원 인원을 확대했다. 이차보전사업은 2020년 이후 선발된 청년 후계농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의 이차 0.5%를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해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차지원사업은 농지, 시설 등 임차료의 50%를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농기반이 미흡한 청년농업인들의 임차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농자재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영농정착지원금 수령이 끝난 청년 후계농들을 위한 후속사업으로 마련됐다. 영농에 필요한 자재 구입을 지원해 경영비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청년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 안정 정책도 추진한다. 청년 후계농이 희망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에 올해 5월 입주 예정인 제3일반산단 행복주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농업인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농가주택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한다.

◆역량강화·상생협력 분야 - 맞춤형 전문 교육과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시는 청년농업인의 역량 강화와 교류 확대에도 힘을 기울인다.

농업인대학 과정에 청년탈기초청반을 편성해 맞춤형 전문교육을 통한 기술적 성장을 돕는다. 소규모 네트워크 활동은 청년 농업인 간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제공해 인적 관계망 형성을 통한 지역 정착과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지원한다.

또한 청년농업인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동아리에 문화활동비를 지원하는 생생동아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농업 인재 유치를 위해 한국농수산대학교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현울 익산시장

정현울 익산시장은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청년천국을 만들기 위해 누구나 도전이 가능한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년농업인들이 살고 싶고, 일하고 싶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청년농업인 네트워크



▲2025년 청년후계농 사업설명회



▲현장지원단





전북의 겨울을 품다, 전북타임스!

당신의 하루를 여는 신뢰의 뉴-스, 전북타임스는 전북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www.jeonbuktimes.co.kr 광고문의 282-9601 기사제보 282-9600 구독신청 282-9603